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대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현명한 령도

김 철 영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대에도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해나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당시의 현실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인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엽이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향도적력량인 당을 변질시키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수정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부인하면서 당을 계급적으로 변질시키는데로 나가고있던 실정에서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 문제는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주체 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주체 73(1984)년 3월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담화와 로작들에서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령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믿음직하게 향도해나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83권 52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의 본질적내용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령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

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으며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전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2(1983)년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론증하시여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독창성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빛나는 업적,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충실성교양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로동계급적관점과 립장을 지키며 착취제도와 제국주의, 계급적원썹들을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

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신념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짙게 들어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전당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전당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를 이루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2(198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하신 연설과 주체73(1984)년 3월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현시기 우리 당에 있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중앙위원회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수령을 받든 것처럼 자기 지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부대렬을 김정일동지께 충실한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결의가 확고하며 능력이 있는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권위를 높이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모든 사

업을 조직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업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보고하고 **김정일**동지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질서와 규률을 세우도록 하는데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도를 나가시거나 잠시 휴식을 하시어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알리시였고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어서도 먼저 **김정일**동지께 방문결과를 통보하시었다.

그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었다.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시었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3(1984)년 3월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였을 때에만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김책동지를 따라배울데 대하여 간

곡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할것없이 어떻게 하면 인민생활을 더 높이겠는가 하는것을 늘 생각하고 방도를 찾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8(1989)년 6월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일군들이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와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지니고 인민들과 운명을 같이해나감으로써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0(1981)년 10월 하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이해 11월말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연설들과 로작들에서 근로단체들을 당의 위업수행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로단체들의 자

립성을 높이고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로 불려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당과 인민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혁명전통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이것은 특히 이 시기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배신자들이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잘 꾸리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1(1982)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개건확장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지시문을 내려보내여 혁명렬사릉개건확장공사를 전당,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주체73(1984)년 4월에는 애국렬사릉을 꾸릴것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74(1985)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훌륭히 개건확장되고 주체75(1986)년 9월에 애국렬사릉이 꾸러지

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이였던 백두산밀영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5(1986)년 8월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여 항일혁명투쟁사적이 깃든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8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백수다리를 건느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이 골안이 낮이 익다고 하시면서 조사해보도록 하시였다. 그후 소백수골에 대한 발굴사업과 항일혁명투사들의 현지고증을 통하여 이곳이 바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백두산밀영이라는것이 확증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귀틀집자리를 마침내 찾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7(1988)년 7월 하순 백두산혁명전적지건설총계획사관을 보아주시면서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7(1988)년 8월 원상대로 꾸려진 백두산밀영을 찾으시고 귀중한 혁명사적들을 전면적으로 고증해주시였으며 그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뒤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을 《정일봉》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정일봉》이라는 글발을 새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

하고 견결히 옹호고수하도록 하시였으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가장 위력한 당으로 더욱더 강화발전될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참모부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의도대로 진행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년재보로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